

# 韓國 자 장 가 研 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 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 出 者 尹 致 富

指 導 教 授 金 榮 敦

1985 年 月 日



# 目 次

I. 序 言 .....	1
II. 韓國 자장가의 性格 .....	4
1. 자장가의 機能 .....	4
2. 자장가와 童·民謠 .....	5
III. 韓國 자장가의 類型 .....	8
1. 全國分布의 典型的 자장가 .....	8
2. 地域的 자장가 .....	11
IV. 韓國 자장가의 內容 .....	17
1. 全國分布의 典型的 자장가 .....	17
1.1. 五 倫 .....	17
1.2. 富 貴 .....	18
1.3. 長 壽 .....	19
2. 地域的 자장가 .....	20
2.1. 庶 民 性 .....	20
2.2. 生 活 相 .....	22
2.3. 諧 謔 性 .....	22
V. 韓國 자장가의 修辭 .....	23
1. 對比되는 型 .....	25
2. 對比되지 않는 型 .....	31
VI. 韓國 자장가의 形式 .....	33
1. 律格構造 .....	33
2. 後斂形式 .....	36
3. 文 體 .....	41
VII. 結 語 .....	49
○ 參 考 文 獻 .....	51
○ Abstract .....	55

## I. 序 言

지금까지 韓國傳承童謠의 수집이나 연구는 民謠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다. 그것은 傳承童謠가 民謠의 한 類型이라는 인식하에서 수집되고 연구되어왔기 때문이다. 傳承童謠만을 수집한 몇 권의 자료집<sup>1)</sup>이 있기는 하나, 이를 분석, 연구한 單行本은 국내에서 단 한 권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傳承童謠도 民謠와의 相關性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傳承童謠研究를 뒤로 미루어 둘 수는 없다. 傳承童謠에 관한 先行研究도 民謠와의 相關하에서만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部分的 研究의 토대 위에서 綜合的 研究도 可能한 것이라면 傳承童謠 자체에 대한 독자적 연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傳承童謠 전체의 의미를 한꺼번에 파악해내는 일은 몹시 어려운 작업에 속한다. 따라서, 전체를 조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傳承童謠에 대한 종류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중의 하나인 자장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자장가는 어른이 어린 아이를 잠재우기 위하여 부르는 傳承童謠이다. 때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에 의해서도 불려지기는 하지만 주된 唱者는 어른이다. 傳承童謠 歌唱의 主體는 대부분 어린이들이지만 자장가만은 주로 어른들에 의해 歌唱됨으로써 노래하는 어른들의 意識과 情緒가 나타난다. 어린이들에 의해 불려지는 傳承童謠가 직접적으로 童心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과는 달리, 자장가는 노래하는 어른들의 의식과 정서가 간접적으로 童心의 세계와 결부되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장가는 다른 傳承童謠와는 類別되는 특이한 童謠的 性格을 지닌다.

---

1) 嚴弼鎭 : 「朝鮮童謠集」, 彰文社, 1924.  
金素雲 : 「朝鮮童謠選」, 岩波書店, 1933.  
—— : 「口傳童謠選」, 博文書館, 1940.  
박두진 : 「한국전래동요독본」, 을유문화사, 1962.  
신경림 : 「한국전래동요집」, 창작과비평사, 1981.

아직까지 자장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民謠에 대한 연구가 점증되는 것에 비례해서 童謠에 대한 연구<sup>2)</sup>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民謠를 우리 詩歌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sup>3)</sup>들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童謠는 물론 자장가에 대한 연구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그것이 傳承童謠에 대한 전체적 이해의 길을 열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장가 연구는 傳承童謠의 이론을 한층 체계화하는 부분적 연구가 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자장가의 性格으로 그 機能은 무엇이며, 자장가를 童謠로 보느냐, 童謠 밖의 民謠로 보느냐 하는 점을 先學들의 견해를 분석하여 고찰할 것이다. 다음은 자장가의 類型인데 全國 分布의 典型的 자장가는 어떤 것이며, 地域的 자장가는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典型的 자장가와 地域的 자장가는 어떤 內容으로 되어있는지가 分析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韓國 자장가의 修辭이다. 여기서는 ‘우리아기’를 잠재우기 위해 對比된 요소들을 추출하여 그 對比關係를 分析한다. 마지막으로는 韓國 자장가의 形式으로 律格構造와 後敘形式, 文體가 파악될 것이다.

한편 이 글에 활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자장가의 편수)

(1) 金素雲; 「朝鮮口傳民謠集」, 東京: 第一書房, 1933. (14)

- 
- 2) 金榮敦; “韓國傳承童謠蒐集研究經緯”, 「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螢雪出版社, 1980.  
 \_\_\_\_\_; “韓國傳承童謠에 드러난 靑少年의 意識”, 「제주대학 논문집」제 12 집, 인문과학편, 1980.  
 \_\_\_\_\_; “韓國傳承童謠의 傳承變異”, 「石田李丙疇先生回甲紀念論文集」, 二友出版社, 1981.  
 \_\_\_\_\_; “童謠”, 「韓國民俗大觀 6」,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1.  
 \_\_\_\_\_; “韓國傳承童謠와 動植物”, 「口碑文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_\_\_\_\_; “韓國傳承童謠의 主題”, 「韓國民俗學」 17號, 民俗學會, 1981.
- 3) 金大幸; 「韓國詩의 傳統研究」, 開文社, 1980.  
 조동일;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4.

- (2) 任東權 ; 「韓國民謠集 I」, 集文堂, 1976. (16)
- (3) \_\_\_\_\_ ; 「韓國民謠集 III」, 集文堂, 1978. (18)
- (4) \_\_\_\_\_ ; 「韓國民謠集 V」, 集文堂, 1980. (48)
- (5) 金榮敦 ;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84. (24)
- (6) 金榮振 ; 「口碑文學大系 3-4」, 忠清北道永同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3)
- (7) 崔來沃 ; 「口碑文學大系 5-1」, 全羅南道南原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3)
- (8) 池春相 ; 「口碑文學大系 6-1」, 全羅南道珍島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4)
- (9) 崔正如·姜恩海 ; 「口碑文學大系 7-4」, 慶尙北道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4)
- (10) 趙東一·林在海 ; 「口碑文學大系 7-7」, 慶尙北道盈德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1)
- (11) 鄭尙乂·柳種穆 ; 「口碑文學大系 8-1」, 慶尙北道巨濟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
- (12) 玄容駿·金榮敦 ; 「口碑文學大系 9-1」, 濟州道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
- (13) \_\_\_\_\_ ; 「口碑文學大系 9-2」, 濟州道濟州市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8)
- (14) \_\_\_\_\_ ; 「口碑文學大系 9-3」, 濟州道西歸浦市·南濟州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18)
- (15) 필자가 1984. 7. 3. 부터 1985. 4. 8. 까지 한림읍 협재리, 성산읍 동남리, 한경면 용수리에서 채록한 자장가. (7)

이상 172 편이 이 글에서 인용 또는 통계 자료로 활용된다.

## II. 韓國 자장가의 性格

### 1. 자장가의 機能

자장가는 어린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 男女老少가 아이를 搖籃이나 그네에 눕혀 좌우로 흔들면서 또는 안거나 업거나 눕히고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가볍게 불기를 두들기면서 吟詠하는 機能謠로서 일종의 傳承童謠이다. 어린 아이는 아직 언어로써 意思 표시를 하지 못하니 배가 고프거나 불편하거나 의사에 맞지 않을 때에 우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한다. 그래서, 잠투정을 할 때면 자장가를 불러 재우려고 한다. 늘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자장가를 들으면 잠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잠이 깨려할 때도 자장가를 부른다. 잠이 깨려할 때 자장가를 다시 부르게 되면 어느새 어린 아이는 평온하게 잠을 잔다. 우는 아이를 재울 수 있거나 잠이 깨려하는 아이를 다시 잠들게 할 수 있을 때 자장가의 主體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거나 필요한 일들을 한다.

자장가의 主體는 자장가의 對象이 잠을 자야할 어린 아이로 固定되는 것에 비하여, 할머니, 어머니 또는 누나 등 몹시 多樣하다. 심지어 할아버지나 아버지, 오빠 등에 의해서도 자장가는 불러진다. 그것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이 할머니, 어머니, 누나 같은 女性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 오빠 등의 男性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가장 가깝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主體가 어머니이고, 어린 아이를 돌보는 고유 임무가 어머니임을 생각할 때 자장가의 주된 主體는 역시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現場에서 수집된 자장가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 오빠 등에게서 採錄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할머니나 어머니에게서 채록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어린 아이를 잠재우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린 아이를 搖籃에 눕히고서 요람을 좌우로 흔들면서 잠재우는 방법이다. 둘째는 잠자리를 그네로

만들어서 어린 아이를 잠재우는 방법이다. 셋째는 어린 아이를 업거나 안거나 눕히고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손바닥으로 볼기를 가볍게 두들기면서 잠재우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은 자장가가 歌唱民謠이기보다는 吟詠民謠이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자장가가 吟詠民謠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재운다는 機能과 아이에게 자라고 하는 辭說은 뚜렷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지만 唱曲의 요소는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장가는 機能과 辭說에 의해서 傳承된다.

## 2. 자장가와 童·民謠

자장가를 童謠로 보느냐 아니면 童謠밖으로 끌어내어 民謠로 보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童謠에 대한 지금까지의 견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길이 열릴 것이다.

먼저 任東權<sup>4)</sup>님은 童謠를 역사적 개념으로서 識謠로서의 童謠, 兒童의 傳承童謠, 어른의 創作童謠로 分類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童謠는 넓은 意味에서 民謠에 屬하면서 概念을 달리하고 있으니, 唱者의 年齡·用語·思考·生活 등에서 오는 諸般 現實 때문에 童謠와 民謠는 다른 章으로 取扱되어 왔다. 사실 民衆에 의해서 民衆의 生活感情이 素朴하게 呼訴되는 民謠는 주로 成人의 世界가 노래되고 있으나, 童謠는 兒童에 의해서 불려지는 데에 兩者를 區分하는 根本的인 差異가 생긴다.」

金榮教<sup>5)</sup>님은 童謠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로서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했다.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면서도 새나 꽃을 보았을 때, 짐승이나 벌레를 보았을 때, 짐승이나 벌레를 보았을 때, 눈과 비가 내릴 때, 벗들과 더불어 즐겁게 뛰어놀 때, 재미있는 말장난을 하여 즐길 때, 머리를 뽀뽀 깎거나 이빠진 애를 놀려주고 싶을 때, 어린애를 잠재울 때에 노래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가 그 하나요.

4)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二友出版社, 1980. p.92.

5) 金榮教; “童謠”, 「韓國民俗大觀 6」,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2. p.354.

어른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창작한 노래가 또 하나라고 했다. 前者가 傳承童謠라고 한다면 後者는 創作童謠이다.

이와 같이 정의할 때 任東權님의 견해로서는 어른들이 부르는 자장가를 傳承童謠에 포함시킬 근거가 없으나, 金榮敦님의 童謠에 대한 개념에는 “어린애를 잠재울 때에 노래하는” 것도 傳承童謠로 보고 있어 자장가를 傳承童謠에 포괄시키고 있다. 그러나, 任東權님도 후에 民謠와 童謠를 구분하면서 자장가는 童謠 가운데 ‘愛撫·자장謠’로 보고 있다.<sup>6)</sup>

다음의 견해들은 자장가를 童謠로 보는 견해들이다. 먼저 金素雲님은 일어로 된 童謠集「朝鮮童謠選」<sup>7)</sup>에서 韓國童謠를 10가지로 나누면서 자장가를 童謠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朴斗鎭님은 「한국전래동요독본」<sup>8)</sup>에서 童謠를 16종으로 분류하면서 역시 자장가를 ‘자장노래’라 하여 童謠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金榮敦님은 「濟州島民謠研究上」<sup>9)</sup>에서 濟州島民謠를 勞動謠篇, 타령류篇, 童謠篇으로 나누고 童謠篇 가운데 자장가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장가를 童謠 밖의 民謠의 한 類型으로 설정한 견해도 있다. 高晶玉은 「朝鮮民謠研究」<sup>10)</sup>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分類는 어떠한 內容의 노래를 누가(男子가?女子가?男子면 成人이?童男이?女子면 成人이?童女가?) 무엇을 할 때(모심을 때?줄다리기 할 때?베짖을 때?어린 아이를 잠재울 때? 혹은 딸을 시집보낼 때? 술마실 때? 애인이 그리울 때?) 부르던 노래냐」

에 따라서 民謠를 분류하고 있다. 즉 高晶玉은 民謠를 크게 男謠, 婦謠로 나누고, 자장가는 婦謠 가운데 母女愛戀謠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鄭東華님은 “拘川地

6) 任東權; 前掲書. p.49.

7) 金素雲; 「朝鮮童謠選」, 東京: 岩波書店, 1933. pp.17-21.

8) 朴斗鎭; 前掲書.

9)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10)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p.96.

方의 民謠攷”<sup>11)</sup>에서 民謠와 童謠로 크게 나누고 民謠 가운데 자장謠類를 설정하고 있다.

日本の 경우 志田義秀는 「日本民謠概論」에서 자장가(子守歌)를 活動的 遊戯歌로 보면서 童謠에 포함시켰고, 柳田國男은 「民謠覺書」<sup>12)</sup>에서 童謠(童歌)를 子守唄・遊ばせ唄・手毬唄・御手玉唄 등으로 나누고 있어 자장가(子守唄)를 童謠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자장가를 童謠로 보는 견해와, 童謠 밖의 民謠로 보는 견해들을 고찰해 왔다. 자장가는 어른들에 의해서 주로 불려지고 때에 따라서는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들에 의해서 불려질 수 있는 傳承童謠이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은 어른은 물론 어린이도 할 수 있다. 자장가는 어린 아이를 재운다는 뚜렷한 機能을 지닌다. 그 기능은 일종의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鮮明하다. 이와 같이 자장가는 선명한 機能謠이면서 老少共有의 노래요, 노래의 대상이 幼兒라는 점에서 다른 傳承童謠들과는 유다르다.<sup>13)</sup>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장가를 童謠 밖으로 끌어내어 독립시키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러나, 자장가는 역시 그 對象과 辭說 자체가 어린이 세계와의 緊密性으로 볼 때 傳承童謠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 다시 말해서, 비록 주된 唱者가 어른이고 그 사실의 내용이 어른들의 정서 및 의식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어린 아이이고 그 사실 자체가 童心의 세계와 결부되어 있어 자장가는 傳承童謠로 보아야 한다. 주된 唱者가 어른이라고 해서 童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른이 어린이를 위해 쓴 創作童謠도 어디까지나 童謠이기 때문이다.

---

11) 鄭東華; “抱川地方의 民謠攷”, 「畿田文化研究」5집, 인천교대 畿田文化研究所, 1974. p.162.

12) 柳田國男; 「民謠覺書」, 創元社, 1940. p.324.

13) 金榮教; “童謠”, 「韓國民俗大觀6」,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2. p.377

### Ⅲ. 韓國 자장가의 類型

#### 1. 全國 分布의 典型的 자장가

자장가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全國적으로 불려진다. 전국적으로 불려지는만큼 그 辭說도 다양하다. 개중에는 전국에 거의 동일한 類型的 辭說이 傳承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辭說의 넘나듬이 자유로운 것도 있다. 辭說의 넘나듬이 자유로운 것은 자연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다. 그러나, 전국에 거의 동일한 類型的 辭說이 傳承되는 자장가는 韓國人의 공통적 정서나 의식이 투영된다. 그 정서나 의식은 한국인의 美的 情緒나 倫理意識 및 價値意識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공통적인 美的 情緒나 倫理意識 및 價値意識의 투영은 辭說의 끈질긴 傳承力을 갖게 한다.

- 
- [1] 은자동아 금자동아  
수명장수 부귀동아  
칠기천금 보배동아  
채색비단 오색동아  
천지전곤 일월동아  
은을주면 너를살가  
금을주면 너를살가  
국가에는 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형제에는 우애동이  
일가친척 화목동이  
동내방내 유신동이  
태산같이 굳세거라  
하해같이 깊으거라  
유명천하 하여보자

(「韓國民謠集Ⅴ」, 980, 咸陽)

[1]은 咸陽地方에서 採錄된 자장가이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類型의 辭說은 全國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앞의 자료에 나타난 전국적 분포 상황은 (표1)과 같다.

(표 1) 典型的 자장가의 分布

道	地域	分布地域
京畿道		서울, 坡州, 江華
忠清北道		永同
忠清南道		禮山, 靑陽, 大田, 康津, 論山
慶尙北道		醴泉, 義城, 英陽, 盈德, 星州
慶尙南道		咸安, 金海, 密陽, 梁山, 巨濟
全羅北道		井邑, 定州
全羅南道		莞島
濟州道		濟州市, 北濟州, 西歸浦市, 南濟州
黃海道		谷山

(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分布地域은 全國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忠清北道, 慶尙北道, 慶尙南道 등지에서는 여러 곳에서 傳承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자장가의 採錄이 이 地域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忠清北道, 全羅南道, 黃海道 등지에서는 단지 한 地域에서만 採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現場調査가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곳에서 이러한 類型의 자장가가 採錄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의 [2]와 [3]은 [1]과 비슷한 유형의 사설로 된 자장가들이다.

- [2] 자장자장 자는구나
- 우리아기 잘도잔다
- 은자동아 금자동아
- 수명장수 부귀동아
- 은을주면 너를살까
- 금을주면 너를살까

국가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게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등등등등 등등등등  
우리아기 잘도잔다

(「韓國民謠集Ⅲ」, 1586, 莞島)

[3] 우리애긴 잘도잔다  
부모에도 소즈동아  
일가에도 화목동아  
동네어른 인심동아  
나라에는 충성동아  
비즈낭엔 비즈동아  
옥즈낭엔 옥즈동아

(「濟州島民謠研究 上」, 1391, 濟州)

[2]는 莞島地方에서 [3]은 濟州地方에서 傳承되고 있는 자장가이다. [2]와 [3]을 [1]과 비교해 볼 때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동일한 類型의 辭說임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유형의 자장가는 다른 형태의 작품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4]는 「응고집 打舍」 속에 등장하는 자장가이며, [5]는 판소리 「沈淸歌」에서 沈奉事가 沈淸을 어르는 노래이다.<sup>14)</sup>

[4] 은자동아 금자동아  
무하자대 백옥동아  
천지만물 일월동아  
아국사랑 간간동아  
하날같이 어지거라  
땅같이 너롭거라  
금울준들 너를사라

14)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p.539.

은을준들 너를사라  
 천상인간 무가보는  
 너하나뿐이로다

(옹고집打命)

[5] 아가아가 내딸이야 아달겸 내딸이야  
 금을준들 너를사며 옥을준들 너를사라  
 어둥둥 내딸이야  
 열소경의 한막대 분방서 안등경  
 새벽바람 사초롱 당기끗혜 진쥬  
 어름궁계 잉어로구나 어둥둥 내딸이야  
 남전북답 장만한들 이에서 더조흐여  
 산호진쥬 어덧든들 이에서 반가오라  
 표진강의 숙향이가 네가되어 태엿나나  
 은하수 직너성이 네가되어 내려왔나  
 어둥둥 내딸이야

(沈淸歌)



「옹고집打命」 속에 나타나는 자장가인 [4]도 [1], [2], [3] 과 동일한 類型이다. 그런가 하면 판소리 「沈淸歌」 初聯의 “금을준을 너를사며 옥을준들 너를사라”는 [1], [2], [4]에도 똑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지 [1], [2], [4]의 ‘은’ 과 ‘옥’의 차이뿐이다. 그러나, ‘은’이든 ‘옥’이든 ‘금’ 다음의 귀중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건들이다.

따라서, 이 ‘은자동아 금자동아’를 노래한 자장가는 全國적으로 傳承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작품 속에서도 傳承되고 있어 典型的 자장가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그 辭說에 있어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傳承되는 과정에서 變異되고 있기 때문이다.

## 2. 地域的 자장가

자장가가 全國적으로 불려지는 노래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그 지역의 특색을

(표 2) 자장가에 드러난 동물

( )안은 %

유형 관계	자료집 동물명	朝鮮口傳 民謠集	韓 國 民謠集	口碑文學 大 系	濟州島民 謠研究上	필 查 재 錄	계
對 立 關 係	개	6 (4.08)	30 (20.41)	18 (12.25)	3 (2.04)	1 (0.68)	58 (39.46)
	고 양 이	1 (0.68)	8 (5.44)	4 (2.72)	1 (0.68)		14 (9.52)
	닭		8 (5.44)	3 (2.04)	1 (0.68)		12 (8.16)
	귀		3 (2.04)	1 (0.68)			4 (2.72)
	승 아 지		1 (0.68)			2 (1.46)	3 (2.04)
	참 새		1 (0.68)	1 (0.68)	1 (0.68)		3 (2.04)
	봉 황 새		1 (0.68)	1 (0.68)			2 (1.46)
	호 랑 이		2 (1.46)				2 (1.46)
	망 아 지					1 (0.68)	1 (0.68)
	개 구 리				1 (0.68)		1 (0.68)
	미꾸라지				1 (0.68)		1 (0.68)
	피 꼬 리		1 (0.68)				1 (0.68)
비 들 기		1 (0.68)				1 (0.68)	
補 足 關 係	까 마 귀		5 (3.40)	7 (4.76)	2 (1.46)		14 (9.52)
	제 비		1 (0.68)	7 (4.76)	2 (1.46)		10 (6.80)
	수 달	1 (0.68)	5 (3.40)	1 (0.68)			7 (4.76)
	학	1 (0.68)	3 (2.04)				4 (2.72)
	약 대		2 (1.46)				2 (1.46)
	준 치		2 (1.46)				2 (1.46)
	나 귀		1 (0.68)	1 (0.68)			2 (1.46)
	봉 어				1 (0.68)		1 (0.68)
평				1 (0.68)		1 (0.68)	
낙 타		1 (0.68)				1 (0.68)	
계		9 (6.12)	76 (51.71)	48 (32.65)	13 (8.84)	1 (0.68)	147 (100)

반영한 자장가가 없을 수 없다. 그것은 자장가와 같은 傳承童謠가 民謠 등의 民間歌謠와 마찬가지로 가장 日常的, 可視的, 具象的인 것으로서 題材하기 때문이다.<sup>15)</sup> 일상주변의 것들은 題材하기 손쉬울 뿐더러, 몸과 마음에 닿아서 쉬 緊張體系를 이룩한다는 점에서 노래의 뜻을 高調하고 그 傳承力을 끈질기게 해준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자장가 속에는 많은 動物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動物들은 개와 같은 전국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濟州島 자장가에 많이 나타나는 까마귀, 제비 같은 동물도 있다. 그런데, 이 동물들 가운데는 '우리아기'가 잠자는데 방해되는 동물도 있고, 우리아기를 美化시키는 補足關係의 동물도 있다. 자장가 자료 총 172편에 나타나는 동물들을 통계하면 (표2)와 같다.

(표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아기가 잠자는데 방해되는 동물은 열세 가지이다. 그에 반해서 우리아기를 比喩하는데 쓰이거나 그런 동물의 속성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동물은 모두 열 가지이다. 이처럼 자장가에는 많은 동물들을 등장시켜 어린 아이의 세계를 동물과 共存하게 하여 童話의 세계를 형성하게 하였다.<sup>16)</sup>

[6] 뒤뜰에	우는송아지
뜰앞에	우는비둘기
언니등에	우리애기
숨소리곱게	잘도자지
앞山수풀	도깨비
방망이들고	온다지
덧문닫고	기다리지
건너洞里	다리아래
항수물이	범었네
앞山밑에	큰아기네
심은호박이	꽃피었네
김매는형님	아니오네
고은줄음만	혼자오네

15) 金榮教; “韓國傳承童謠와 動植物”, 「口碑文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39.

16) 具然賦; “우리 民謠에 나타난 母性愛”, 「民俗文化」第二輯, 東亞大學校民俗文化研究所, 1980. p.26.

우리애기	잘도잔다
뒷집개도	잘도잔다
앞집개도	잘도잔다
梧桐나무	가지우에
鳳凰새의	잠일런가
壽命長壽	할잠자고
萬石巨富	될잠자라

(「韓國民謠集 I」, 1567, 咸陽)

[6]은 송아지, 비둘기, 개, 봉황새 등 네 가지 동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송아지, 비둘기, 개가 睡眠의 妨害要素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봉황새는 잠자는 아이의 補足關係 동물로 표현되어 있다. 자장가에 있어서 어린 아이의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동물은 개이다. 그러나, [6]에 나타난 개는 잠자고 있는 개로 묘사되어 있다. 수면을 방해하는 개가 잠을 자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잠자는 데 별 문제가 없어진다. 그런데, 이 개를 자장가의 題材로 노래하는 地域的 특색은 다르다. 특히 濟州道의 경우 [6]과는 달리 강한 語調로 개에게 어린 아이를 잠재워달라고 노래하고 있다.

[7]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저래가는 검둥개야  
 우리애기 재와도라  
 느네애기 재와주마  
 아니재와 주다그네  
 총배로 무꺼다가  
 천지소레 디리첫닥  
 내첫닥 ㅎ여불켜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는소리 나는구나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자랑

(「口碑文學大系 9-3」, p.866, 濟州)

[7]에서 자장가의 主體는 威脅的 어조로 개에게 어린 아이를 잠재워달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6]과 [7]에 나타난 개에 대한 어조는 판이하다. [7]과 같은 類型은 濟州島의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결코 傳承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6]이나 [7]은 그 地域의 특색을 반영한 자장가들이다.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기 때문에 辭說은 상호 流動的이다.

그런데, 자장가에 나타나는 이러한 동물들은 수면의 방해로 작용하는 것도 있는 반면 어린 아이를 美化시키는 데 표현된 補足關係의 동물도 있다. 그 比喻 對象이 本土 자장가의 경우 학이나 낙타 같은 것인데 반해 濟州島의 경우는 까마귀나 제비 등이다.

[8] 누윙자라	누윙자라
어서자라	누윙자라
ㄹ래꼴앙	밥향영
할머니도	디리곡
아버지도	디리곡
나도먹영	사느니
설룬애기야	누윙자라
물아래옥돌	ㄹ뜬애기야
제비새알라구리	ㄹ뜬애기
까마귀촌놀개	ㄹ뜬애기
자랑자랑	자랑자랑

(「口碑文學大系9-2」, p.574, 濟州)

[8]에서 보면 우리아기는 제비의 부리 같은 아기이며, 까마귀 잔날개 같은 아기이다. 이때의 제비와 까마귀는 우리아기의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比喻 對象이 아니라 우리아기를 美化하는데 補助觀念으로 끌어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의 成長을 기원하는 비유 대상에 있어서도 地域的 특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慶尙北道 安東地方에서는 어린 아이의 成長을 모과가 크는 것에 비유하는 반면 濟州島에서는 오이·참외·배추 등에 비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유의 대상들은 그 地域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서 唄者의 의식 속에 잠재

해 있다가 노래하는 순간 쉽게 表出된 것들이다.

[9] 자장자장    워리자랑  
    앞집개도    잘도잔다  
    뒷집개도    잘도잔다  
    개야개야    궁궁개야  
    짓지를랑    마라그리  
    우리아기    잘도잔다  
    등글등글    호개야  
    아문따나    쫓아라야  
    니치장은    내해주마

(「韓國民謠集V」, 951, 安東)

[10] 자랑자랑    자랑자랑  
    누윙자라    누윙자라  
    자랑자랑    자랑자랑  
    할마님아    할마님아  
    어진애기    키와줍서  
    물웨크듯    키와줍서  
    춤웨크듯    키와줍서  
    넙늬를키우듯    키와줍서  
    자랑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口碑文學大系 9-2」, p.575, 濟州)

특히 [10]에서는 우리아기를 키워달라는 대상으로 ‘삼승할망’이 등장한다. 이 삼승할망은 한쪽 손에 번성꽃을 쥐고 한쪽 손엔 환생꽃을 쥐어, 앓아 천 리를 보고 서서 만 리를 보며, 하루 만 명씩 孕胎를 주고 또 解散시키는 產神으로<sup>17)</sup> 成人이 되는 15세까지 키워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17) 玄容駿; 「濟州島神話」, 瑞文文庫 219, 1978. p.32.

따라서, 地域的 자장가는 동일한 제재를 가지고서도 그 사설이 流動的이며 비유의 대상도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서 노래하고 있다. 또한 全國分布의 典型的 자장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儒敎思想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 Ⅳ. 韓國 자장가의 內容

### 1. 全國分布의 典型的 자장가

全國分布의 典型的 자장가는 地域的 자장가보다 그 內容에 있어 노래하는 主體의 愛情과 期待가 잘 나타나 있다. 주된 內容은 儒敎思想의 五倫을 노래한 것, 富貴를 노래한 것, 長壽를 노래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1.1. 五 倫

儒敎思想은 韓國人의 傳統思想 가운데 한 가지로 그 근본 정신은 三綱五倫이다. 儒敎를 중시했던 朝鮮朝 500여년동안 이 三綱五倫의 정신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忠孝思想은 儒敎思想의 기본으로, 특히 全國分布의 典型的 자장가에 강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이 忠孝思想과 함께 夫婦・長幼・朋友 사이의 倫理도 함께 노래되고 있어 五倫의 정신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11] 동개동개 동개동  
은자동아 금자동아  
만첩산중 폭포동아  
은을주면 너를사라  
금을주면 너를사라  
은자동두 동이요  
금자동두 동이라  
나라님께 충신동  
부모님께 효자동

동기간에 우애동  
 부부간에 화락동  
 친척간에 화목동  
 동내방내 인심동  
 친구간에 유신동  
 충신동두 동이요  
 효자동두 동이라  
 우애동두 동이구  
 화목동두 동이구  
 화락동두 동이라  
 유신동두 동이라  
 동개동개 동개동

(「韓國民謠集Ⅴ」, 969, 龍仁)

[11]에서 “나라님께 충신동”과 “충신동두 동이요”에서는 君臣有義를, “부모님께 효자동”과 “효자동두 동이라”에서는 父子有親을, “부부간에 화락동”과 “화락동두 동이라”에서는 夫婦有別을, “동내방내 인심동”과 “인심동두 동이라”에서는 長幼有序를, “친구간에 유신동”과 “유신동두 동이라”에서는 朋友有信을 노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기간에 우애동”과 “우애동두 동이구”, “친척간에 화목동”과 “화목동두 동이라” 역시도 五倫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하는 생각들이다.

## 1.2. 富 貴

사람은 누구나가 富貴榮華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富貴榮華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휴식이면서 특히 어린 아이들의 곤히 자는 잠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이왕에 잠잘 바에야 巨富가 될 잠, 貴한 사람이 될 잠을 바랐던 것이다.

[12] 은자동아 금자동아  
 세상천지 옷듬동아  
 부모에게 효자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어름궁계	수달피나
사낫밋헤	미나리나
무주공산	жат송이나
청산봉안	대초씨나
날어가는	학선인가
구름속에	신선인가
웃고름밋헤	옥동자요
수팔년에	밀동자라
선수불공	내아들아
늑음에진	정내딸아
은을주면	너를사라
금을주면	너를사라
남전복답	장만한을
이에서	더조흐며
산호진주	어덧슨들
이에서	더조흐라
대장되건	홀치훈덕
충신되면	백이축체
등등등등	등등등등
등계등계	등개야

(「朝鮮口傳民謠集」, 13, 서울)

[12]에서 世上天地에서 가장 貴한 것은 아기이며, 銀을 주어도 사지 못하고 金을 주어도 사지 못하는 貴童이다. 大將이 되려면 乙支文德이 되고, 충신이 되려면 伯表叔齊가 되라는 것이다. 곧 乙支文德과 伯表叔齊는 富貴榮華의 표상인 것이다. 南田北畚을 장만하는 일은 재산이 늘어나니 반가운 일이지마는 그보다도 소중한 것이 貴童이인지라 재우면서도 자장가를 불러 장래에 富貴榮華를 누릴 것을 바랐다.

### 1.3. 長壽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人之常情으로 富貴榮華를 누리며 오래 사는 것은 人間의 가장 큰 바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재우는 사이에 자장가의 主體는 어린 아이로 하여금 長壽할 잠을 자기를 바란다. 이는 아기의 장래에 대한 期待와 希望

에서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13]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주면 너를사나  
    은을주면 너를사나  
    우리아기 잘도잔다  
    만첩산중 호표동아  
    칠기청산 백옥동아  
    우리아기 잘도잔다  
    동방삭의 명을받고  
    석숭의 복을빌어  
    명잠자고 복잠자자  
    우리아기 잘도자네

(「韓國民謠集V」, 975, 盈德)

[13]은 三千甲子 東方朔의 명을 받아 長壽하고 石崇의 복을 받아서 命잠 福잠을 이루어 잘 자라고 기원하고 있다.



## 2. 地域的 자장가

地域的 자장가는 全國分布의 典型的 자장가와는 달리 그 內容에 있어 庶民性, 生活相, 諧謔性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는 全國分布의 典型的 자장가가 노래하는 主體의 愛情과 期待가 儒教思想으로 승화되어 표현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庶民的인 生活感情이나 情緒를 形象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 2.1. 庶民性

자장가를 노래하는 주된 主體가 婦女子이고 보면 자장가는 저절로 庶民性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婦女子의 의식과 정서가 地域性과 결합될 때 庶民性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貴族들은 說話·수수께끼·俗談 등에는 참여하지만, 노래하는 데는 외면한다.<sup>18)</sup> 따라서, 民謠나 傳承童謠는 庶民的일 수밖에 없으며, 자장가는

18) 金榮教; “민요의 기능과 사설”,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2. p.115.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상 주변의 것들을 제재로 하기 때문에 더욱 더 庶民性이 강하게 나타난다.

[14] 동실동실      잘도잔다  
 어화등등      내사랑  
 콩나물전을      가졌던가  
 콩나물같이도      잘크고  
 비상전을      가졌던가  
 비상하게도      이쁘네  
 동실동실      잘도잔다  
 어화등등      내사랑  
 사그전을      가졌던가  
 삼삼하게도      이쁘고  
 응그전을      가졌던가  
 응골시럽게      이쁘네  
 동실동실      잘도잔다  
 어화등등      내사랑  
 상추발을      가졌던가  
 상추같이도      이쁘고  
 효치발을      가졌던가  
 효치같이도      이쁘네  
 동실동실      잘도잔다  
 어화등등      내사랑  
 소금전을      가졌던가  
 간간하게도      이쁘고  
 담배발을      가졌던가  
 담배같이도      잘크네  
 동실동실      잘도잔다

(「韓國民謠集V」, 942. 扶安)

[14]에 비유의 대상으로 쓰인 것들은 하나같이 서민적인 것을 연상시킨다. 콩나물·상추·소금·담배 등이 그것이니 이는 唱者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사물들이 비유의 대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 2.2. 生活相

韓民族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운택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益甚한 노동과 부족한 식량과 불운한 빈곤 속에서 지내왔으니 이러한 生活相이 文學作品 속에 짙게 드러나 있다. 특히 濟州島의 경우 地理的으로 우리 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環海孤島의 섬이며, 自然的으로 農耕地域이 湛水狀態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화산회토의 保水性 결여로<sup>19)</sup> 땅은 척박하다. 歷史的으로 목사들의 횡포가 심했을 뿐 아니라 朝鮮時代까지만 해도 最高刑을 받은 流刑囚들이 유배 온 최악의 流謫地였다.<sup>20)</sup> 이러한 최악의 조건들은 현실생활을 결코 즐겁게 만들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생활의 어려움을 노래하게 했다.

[17] 왕이자랑 왕이자랑  
내 팔제가 꺾어지여  
이런의상 만나근에  
느도고생 나도고생  
왕이왕이 왕이자랑  
우리어멍 날날적의  
무신날에 날로나근  
행복시리 아니뉘연  
설운아기 탄생호연  
모든고생 호염고나<sup>21)</sup>

[17]은 노래하는 主體의 身世恨歎이다. 이는 잠자야 할 어린 아이와 직접적으로 상관된 것이 아니라 자장가를 노래하는 과정에서 唱者의 心理的 狀況이 그대로 反映된 것이다.

## 2.3. 諧 謔 性

19) 姜景璿; “濟州道 農耕方式(農法)에 대한 比較研究(上)”, 「耽羅文化」創刊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2. p.90.

20) 梁淳秘; “朝鮮朝流配文學研究”, 建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2. p.3.

21) 필자채록, 한경면 용수리, 1985.4.7. 진정임·여. 61.

諧謔은 主觀的 滑稽의 복잡화한 美的 範疇로서, 그 조건은 客觀的 滑稽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모순에 의한 對照感情에 있다. 그러나, 諧謔에 있어서의 모순은 객관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對照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특수한 대조를 일으키는 것이 그 특색이다. 따라서, 이 모순의 불쾌감을 정복하고 相殺하는 것은 객관적 골계의 경우엔 대조 그 자체의 형식적 관계에 의한 쾌감이지만, 해학에 있어서는 도리어 대조의 한 부분에 두는 우월한 가치 자체에 의거하는 쾌감이다.<sup>22)</sup>

[16] 동실동실 모개야  
아무락구 줘아다오  
개똥발에 궁글어도  
아무락구 줘아다오

(「韓國文學의 諧謔」, p.61, 奉化)

[16]은 아이를 업고 재우면서 아이를 모과에다 비유해서 모과처럼 아무렇게나 자라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를 업고 재우는 主體는 자기 아이를 美化시켜 잘 생겼다고 하고, 귀하고 곱게 자라라고 하는 것이 常例일 터인데, [16]에서는 그러한 관념을 파괴하고 美化되어야 할 아이를 못 생긴 모과라고 하며, 귀하고 곱게 자라야 할 아이가 개똥발에 궁글어도 좋다고 함으로써 諧謔이 성립되고 있다.<sup>23)</sup>

## V. 韓國 자장가의 修辭

자장가의 機能이 어린 아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辭說은 저절로 어린 아이를 美化하거나 成長을 기원하는 修辭의 특징을 지닌다. 이는 어린 아이에 대한 唱者의 愛情과 期待가 나타난 것으로서, 그 제재는 日常的, 可觀的, 具象的인

22) 文德守編; 「世界文藝大辭典(下)」, 成文閣, 1975. p.2388.

23) 趙東一; “民謠에 나타난 諧謔”, 「韓國文學의 諧謔」, 時事英語社, 1982. p.61.

생활 주변의 것들이다. 어린 아이를 美化하거나 成長을 기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장가에 많은 動植物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을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노래하는 主體의 ‘우리아기’를 美化하기 위해서 학이나 낙타, 제비, 까마귀 같은 동물과 호박이나 비자나무 같은 식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자장가의 機能이 어린 아이를 잠재우는 것이라면 이 잠재우려는 의지는 자장가의 辭說 속에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수면의 방해 요소를 비유의 대상으로 대비시키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자장가의 근본적인 修辭는 바로 잠자야 할 唱者의 우리아기와 우리아기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및 ‘남의아기’ 사이에 對比關係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잠을 자게 하는 의지는 唱者의 의지로서 어린 아이가 잠자는 것에 肯定的으로 작용하나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唱者의 의지에 대립된 것으로 어린 아이가 잠자는 것에 否定的으로 작용한다. 물론 자장가 중에는 이런 對比的 요소가 없는 자장가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수면의 방해적 요소가 唱者의 의식 속에서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장가는 이런 대비적 요소가 존재하는 형태와 대비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兩分될 수 있다. 그리고, 대비적 요소가 존재하는 자장가는 對比關係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자장가에 나타나는 대비적 요소는 자장가의 기본적 대상인 우리아기, 우리아기와 모든 면에서 상반되는 남의 아기, 그리고 잠자야 할 의지에 대립되는 ‘개’ 및 개의 變異形態인 ‘기타동물’의 네 가지이다. 우리아기는 唱者의 잠을 자게 하는 의지를 좇아 잠을 자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남의아기는 잘 울면서 잠자지 않는 미운 아기이다. 잘 울면서 미운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아기와는 대비적 대상이 된다. 그런가 하면 개 역시 짖어대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아기가 잠자는 데는 방해가 된다. 이러한 개의 방해 의지는 비단 우리아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의 아기에도 작용한다. 어린 아이가 잠잔다는 것은 唱者의 잠을 자게 하는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반응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울거나 보챌다는 것은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의지가 작용하여 반응한 현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동물 역시도

개의 變異形으로서 우리아기와 남의아기가 잠자는 데 방해가 되는 고양이, 닭, 송아지 따위이다. 따라서, 자장가는 대비적 요소의 存在有無에 따라 일곱 가지의 대비되는 型과 두 가지의 대비되지 않는 型으로 나눌 수 있다. 對比되는 型이란 우리아기, 남의아기, 개, 기타동물 중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지닌 것이며, 대비되지 않는 型이란 네 가지 요소 중 한 가지 요소만을 지녔거나 어느 하나도 지니지 않은 것이다. 앞의 자료에 나타난 172 편의 자장가를 이들 대비적 요소의 存在有無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sup>24)</sup>

(표 3) 자장가의 對比關係 ( )안은 %

유 형		자 료 집	朝鮮口傳 民 謠 集	韓 國 民 謠 集	口碑文學 大 系	濟州島民 謠研究上	필 차 록	계
對 比 되 는 型	A : A' 型		5 (2.91)	7 (4.07)	9 (5.23)	1 (0.58)	5 (2.91)	27 (15.70)
	A : B 型		2 (1.16)	8 (4.65)	3 (1.75)			13 (7.56)
	A : B' 型			2 (1.16)	1 (0.58)	1 (0.58)		4 (2.36)
	A : A' : B 型		3 (1.75)	5 (2.91)	9 (5.23)	2 (1.16)	1 (0.58)	20 (11.63)
	A : B (B') 型		1 (0.58)	12 (6.98)	5 (2.91)			18 (10.47)
	A : A' : B' 型					1 (0.58)		1 (0.58)
	A : A' : B(B') 型			5 (2.91)	4 (2.36)	1 (0.58)		10 (5.81)
對 比 되 지 않 는 型	A 型		3 (1.75)	40 (23.26)	12 (6.98)	17 (9.88)	1 (0.58)	73 (42.44)
	變 型			3 (1.75)	2 (1.16)	1 (0.58)		6 (3.49)
계			14 (8.14)	82 (47.67)	45 (26.16)	24 (13.95)	7 (4.07)	172 (100)

### 1. 對比되는 型

자장가의 對比되는 型은 (표 3)에서와 같이 일곱 가지가 된다. A, A', B, B' 중 두 가지 요소의 對比되는 型은 A:A' 型, A:B 型, A:B' 型으로 세 가지이며, 세

24) 對比型을 설정하기 위해 편의상 다음과 같이 기호화한다. 우리아기=A, 남의아기=A, 개=B, 기타동물=B', 그리고 對備關係는 수학적 기호:를 사용한다.

가지 대비 요소가 나타난 것은 A':A':B型, A:B(B')型, A:A':B'型으로 역시 세 가지이다. 그러나, 네 가지 대비 요소가 나타난 것은 A:A':B(B') 하나뿐이다.

### 1.1. A:A'型

이 型은 우리아기와 남의아기 사이의 대비이다. A나 A'는 모두가 잠자야할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B나 B'에 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唱者가 잠을 자게 하는 의지의 대상은 A'가 아니라 A이다.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이 型은 총 172편 가운데 27편으로 15.7%를 차지하고 있다.

[17] 자장자장 워리자장  
 우리애긴 잘두잔다  
 앞집애긴 못난애기  
 우리애긴 잘난애기  
 우리애긴 잘두잔다  
 워리자장 워리자장  
 (『韓國民謠集 I』, 1468, 江陵)

[17]에서 우리아기는 잘난 아기인데 반해 앞집애기(남의아기)는 못난 아기이다. 잘난 아기와 못난 아기는 그 자체가 대립적이다. 그래서, 우리아기가 잠자게 될 때 남의아기는 울거나 보챌 수 있어 반대의 상황을 만들게 된다.

### 1.2. A:B型

이 A:B型은 우리아기와 개의 대비이다. 개는 우리아기가 잠자려는 의지에 가장 강하게 대립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개가 등장하는 對比하는 型은 A:B型 이외에도 A:A:B型, A:B(B')型, A:A':B(B')型 등이 있다.

[18] 앞집개도 잘도잔다  
 뒷집개도 잘도잔다  
 우리애기도 잘도잔다

위리위리 자장자장

(「韓國民謠集V」, 944, 禮安)

[18]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아기가 잠자는 데 방해 요소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앞집개와 뒷집개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아기가 잠자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집개와 뒷집개가 잠을 자야만이 우리아기가 잠잘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방해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3. A:B' 型

이 A:B' 型은 잠을 자야하는 우리아기와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동물과의 대비이다. 이 때의 기타동물은 어린 아이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개와 유사한 이미지로 통할 수 있으며 또한 어린 아이에게 친숙한 것이 개일 수만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기에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동물이면 B'가 된다.(표 3)에서 보는 것처럼 4편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B'가 B의 變異形으로서 자장가에서 B가 B'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한다.

[19] 자장자장 영똥아기 잘두잔다

고양이도 자구

호랑이도 자구

취도자구 새도자구

우리애기 잘도잔다

(「韓國民謠集I」, 1569, 瑞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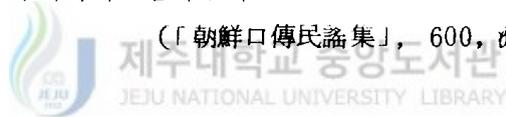
[19]도 [18]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는 우리아기가 잠자는 데 방해적 요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19]의 고양이, 호랑이, 쥐, 새는 다같이 개의 變異形態들이다. 이들도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아기가 잠자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잠을 자야만이 우리아기가 잠잘 수 있다는 것은 방해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A:B' 型은 A:B 型과 비슷한 對比되는 型이다.

#### 1.4. A:A':B 型

이 A:A':B 型은 우리아기와 남의 아기, 그리고 개와의 三角關係를 이루면서 대비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아기에 대해서는 남의아기와 개가, 남의 아기에 대해서는 우리아기와 개가, 그리고 개에 대해서는 우리아기와 남의 아기가 대비적 요소가 되고 있다. (표 3) 에서 이 對比하는 型은 20 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자장가의 중요한 對比型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0] 자장자장 자는구나  
우리애기 잠재주고  
나우애기 깨여주게  
토제밋헤 검청개야  
마당에서 도는개야  
우리애기 곤밤주고  
우리아기 잠재주라

(「朝鮮口傳民謠集」, 600, 濟州)



[20]은 우리아기와 남의 아기, 개 사이의 대비이다. 여기서 개는 우리아기를 잠재워줄 수 있는 존재이면서, 남의아기를 깨어나게 할 수 있는 二重性을 지닌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아기와 개 사이에는 방해적 요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아기의 수면을 개에게 의탁한다는 그 자체는 방해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5. A:B(B') 型

이 A:B(B') 型은 우리아기와 개와 기타동물 사이의 대비이다. 이 對比되는 型에는 A와 B, A와 B' 사이에는 對比關係가 이루어지지만 B와 B' 사이에는 기본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三角關係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B와 B' 사이에도 대비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21]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엄매 있다와서  
 젓을주언 먹고자자  
 자장자장 차창개야  
 황황개야 짓지말아  
 흐흐닭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차창개야  
 황황개는 저리가고  
 흐흐닭은 이리온나  
 우리애기 잠을깬다  
 자장자장 자장개야

(「口碑文學大系 6-1」, p.269, 珍島)

[21]에서 우리아기가 잠자는 데 방해되는 존재는 개와 닭이다. 개와 닭은 우리아기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대비적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는 짓지말고, 닭은 울지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개는 저리 가고 닭은 이리 오도록 하는 데에서 개와 닭 사이에도 대비관계가 발생했다. 개와 닭 사이의 이러한 대비관계는 우리아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 1.6. A:A':B' 型

이 A:A':B' 型은 우리아기와 남의아기, 그리고 기타동물 사이의 대비이다. 이 對比하는 型은 A:A' 型과 A:B' 型의 結合된 對比型이다. (표 3)에서는 1편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22] 우리애친 줌잘잔다  
 우리애친 고운애기  
 우리애친 옥강생이  
 우리애친 말잘듣꼭  
 밥추리도 재워주꼭  
 송애기도 재워주꼭

흥생이도 재워주곡  
 우리애긴 잠잘잔다  
 흙의애긴 울어가도  
 우리애긴 웃어가명  
 흙의애긴 쿠스버리  
 밥추리도 도망가곡  
 흥생이도 도망가곡  
 자랑자랑 우리애기

(「濟州島民謠研究上」, 1392, 濟州)

[22]에서는 우리아기와 남의아기, 그리고 기타동물에 해당하는 참새, 송아지, 망아지들과의 대비이다. 우리아기는 옥강아지 같이 고운 아기이며, 방실방실 잘못기 때문에 참새, 송아지, 망아지가 재워준다고 했다. 그러나, 남의아기는 잘 울뿐만 아니라 버릇까지 나쁘기 때문에 참새, 송아지, 망아지가 도망간다는 것이다.

#### 1.7. A:A':B(B')型

이 A:A':B(B')型은 우리아기와 남의아기, 개, 그리고 기타동물 사이의 대비로서 자장가에서 가장 복잡한 對比되는 型이다. 이는 A:A'型, A:B型, A:B'型, A:A':B型, A:A':B'型, A:B(B')型 등이 융합된 對比型이다.

[23] 자랑자랑 우리애기  
 잠잘잔다  
 문턱밑에 침청개야  
 반침밑에 찻찻개야  
 마당간데 백상개야  
 동네개도 짓지말고  
 옥호훤도 우지마라  
 우리애기 잠잘잔다  
 차창차창 자장개야  
 우리애기 잠잘잔다  
 우리애기 자장개야  
 재여주고 울애기는

꽃방석에 재여주게  
자장자장 자장개야  
우리애기 잠잘잔다

(「口碑文學大系 6-1」, p.574, 珍島)

[23]에서는 우리애기와 남의애기, 개, 그리고 닭의 대비이다. 우리애기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개도 짖지말고 닭도 울지말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애기가 꽃방석에 잠을 자는 것과 남의애기가 개똥밭에 잠자는 것은 그것 자체가 대비관계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남의애기도 잠을 자기 위해서는 역시 개도 짖지말고 닭도 울지 말아야 한다.

## 2. 對比되지 않는 型

자장가의 對比되지 않는 型은 A, A', B, B' 중 하나의 요소밖에 없거나 아무 요소도 나타나지 않는 型이다. 이 對比되지 않는 型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우리애기만을 노래한 A型과 語戲的 요소가 강한 變型이 있다.

### 2.1. A型

이 A型은 우리애기만을 노래하기 때문에 대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 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의 42.44%가 이 A型에 속하는 주된 型으로 모든 자료집에 고루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지방에서도 흔히 傳承되는 全國分布의 典型的 자장가이다.

[24] 자장자장 자는구나  
우리애기 잘도잔다  
은자동이 금자동이  
수명장수 부귀동이  
은을주면 너를살가  
금을주면 너를살가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게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일가친척 화목동이  
 동네방네 유신동이  
 태산갓치 굳세거라  
 하해갓치 집고집허  
 유명천하 하여보자  
 잘도잘도 잘도잔다  
 두둥두둥 두둥두둥  
 우리아기 잘도잘다

(「朝鮮口傳民謠集, 54, 坡州)

[24]는 대비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요소가 우리아기 하나뿐이다. 이 하나만 가지고서는 대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2.2. 變 型

이 變型은 대비관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A이외의 A', B, B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型이다. 이 對比型에는 語戲的 요소가 강하며, 어린 아이에게 잠재 우려는 의지나 잠재우려는 의지에 방해적 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5] 차장차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우리애기  
 강남가는 제비는  
 가갸거겨 고교요  
 꽃은비 줄줄맞어  
 구규그기 가귀라  
 차장차장 우리애기  
 잘도잘다 자랑자랑  
 날저믄날 가을산길  
 나나너너 노노요  
 눈물로 넘는고개  
 누뉴느니 놔뉘라

(「韓國民謠集 V」, 960, 濟州)

[25]에는 자장가에서 대비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네 가지 요소 중 A', B, B'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같이 [25]에는 단순한 말장난의 의미밖에는 없다.

## IV. 韓國 자장가의 形式

### 1. 律 格 構 造

民謠가 노래이고 보면 旋律的 요소가 앞서는 것이고, 律格的 요소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旋律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民謠가 旋律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리랑」·「오돌또기」 같은 唱民謠의 경우에는 機能이 없는 民謠이고, 자장가 같은 경우는 機能謠이다. 前者가 旋律的인 民謠라고 한다면 後者는 吟咏的인 民謠이다. 이와 같이 民謠에 吟咏的인 것이 많다는 사실은 民謠의 律的資質에 대한 증거가 된다. 吟咏할 수 있다는 사실은 吟咏이 朗誦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sup>25)</sup>

지금까지는 民謠의 律格을 헤아림에 있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왔다. 하나는 오래전부터 취해온 방법으로 음절의 수효를 헤아리는 音數律的 방법<sup>26)</sup>이고, 다른 하나는 音數律的 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克服·止揚하는 音步律的 관점의 이론이다.<sup>27)</sup> 그러나, 音步律에 관한 견해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音步律이란 대체로 3,4 音節을 기준으로 하는 音步를 단위로 해서, 그러한 音步 몇개가 한 行을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 1 音步格에서 5 音步까지의 다섯

25) 金大幸; 「韓國詩의 傳統研究」, 開文社, 1983. p.15.

26) 高晶玉; 前掲書.

任東權; 前掲書.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一潮閣, 1981.

27) 鄭炳昱; “古詩歌韻律論序說”, 「國文學叢書」, 新丘文化社, 1959.

芮昌海; “韓國詩歌韻律의 構造研究”, 「成大文學」, 成大國語國文學, 1976.

金大幸; “韓國詩歌律格論序說”, 「韓國詩歌構造研究」, 三英社, 1976.

趙東一; “現代詩에 나타난 전통적 율격의 계승”, 「우리 문학과 의 만남」, 弘省社, 1978.

成基玉; “韓國詩歌의 律格體系研究”, 서울大碩士論文, 1980.

가지 종류로 설정하고 있다.<sup>28)</sup> 그런데, 자장가에는 2音步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때로는 變形의 3音步格이 가끔 나타나기도 한다.

### 1.1. 2音步格

1音步格이 가장 급격하고 빠른 動作의 勞動謠에 나타나는데 비해 2音步格은 그 다음 급격한 느낌을 주는데,<sup>29)</sup> 장중하면서도 안정감이 있으나 生動感이 없고 율동성이 약한 것이 특징이다.<sup>30)</sup>

자장가의 경우 노래하는 상황은 세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세가지 機緣은 자장가가 2音步格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어린 아이를 안아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이나 또는 어린 아이를 업고 가볍게 흔드는 동작, 그리고 요람에 어린 아이를 눕히고 좌우로 흔드는 동작이 2音步의 律格과 상관된다. 따라서, 자장가의 주된 律格이 2音步가 되게 하고 있다.

[26] 큰어명은 봉근애기  
      작은어명 낱은애기  
      동내방상 울린애기  
      사흘상위 모인애기  
      일퀘잔치 흥신애기  
      (「濟州島民謠研究上」, 1396, 濟州)

[27] 앞도랑에 빠졌든가  
      뒷도랑에 솟았든가  
      알송달송 단치외가  
      옹글똥글 수박인가  
      (「韓國民謠集 I」, 1578, 義城)

28) 成基玉; 上揭書.

張德順外 3人;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0.

29) 張德順外 3人; 上揭書, p.93.

30) 趙東一; 「絃事民謠研究」, 啓明大出版部, 1970. p.163.

[26] 과 [27] 은 완전히 4 音節이 1 音步가 된 2 音步格 자장가이다. 이것은 자장가를 노래하는 動作이 항상 규칙성을 띠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 1.2. 3 音步格

3 音步格은 그리 급격하지는 않으나, 4 音步格에 비해서는 경쾌한 느낌을 준다.<sup>31)</sup> 자장가의 주된 律格이 아니라, 가끔 2 音步格에 혼합되어 變形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놀의애긴 조치떡에 코발라주고  
우리에긴 이차떡에 꿀발라주지  
(「韓國民謠集Ⅰ」, 1572, 龍岡)

[29] 눈이커서 잃어버린것 잘찾고  
코가커서 냄새를 잘맞고  
귀가커서 도둑을 잘지키고  
입이커서 상치쌈을 잘먹고  
(「韓國民謠集Ⅰ」, 1580, 禮山)

[30]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우리애기는 꽃밭에 뉘어놓고  
남의아기는 고추밭에 뉘어놓고  
(「韓國民謠集Ⅲ」, 1575, 扶安)

[31] 마리밑에 삼살개도 깃지말고  
마당에 꼬꼬닭도 울지말고  
뒷동산에 씨꼬리도 울지말고  
나무섭에 참새들도 울지마라  
(「韓國民謠集Ⅴ」, 962, 扶餘)

[28], [29], [30], [31] 의 3 音步格은 2 音步格 자장가의 各篇 사이에 끼어든 형태이다. 자장가의 주된 音步格이 2 音步格인데 이와 같은 3 音步格은 자장가를 노래하는 동작에 變形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린 아이가 몹시 보챌다거나

31) 張德順外 3人; 前掲書, p.94.

노래하는 唱者의 동작이 定形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러한 3音步格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뒤 사설의 연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唱者의 노래하는 辭說의 내용이 定形の 2音步로 연결시킬 수 없을 때 이러한 變形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린 아이를 재우는 동작에 變形을 준다.

## 2. 後 斂 形 式

後斂(Refrain, Nonsenseverse)은 餘音의 일종으로, 여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형태이다. 詩歌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 되어 나타나는 음성이나 말로서 없어도 詩想은 성립될 수 있는 것들을 餘音이라 하고, 특히 音步나 行 또는 聯이 끝날 때마다 나타나는 餘音이 後斂이다. 後斂에는 「아리랑」의 “아리랑 아리랑요”에서처럼 의미는 없고 音聲象徴的 효과만 지닌 것이 있는가 하면, 「가시리」의 “위증즐가 태평성대”에서처럼 의미 없는 음성에 의미 없는 말이 들어 있는 것도 있고, 「翰林別曲」의 “괴엇더하니잇고”에서처럼 의미 있는 말로만 된 것도 있다. 이런 後斂은 音聲象徴的 효과나 의미로써 詩歌의 분위기를 돋우고 歌唱이나 吟詠을 더욱 흥겹게 한다.

後斂은 勞動謠에서 시작되었고, 勞動謠는 後斂으로 시작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힘든 勞動을 여럿이 보조를 맞추어 같이할 때, 힘을 내기 위해, 行動을 통일하기 위해,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일정한 음성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제히 되풀이하는 광경은 지금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後斂만으로 된 가장 단순한 것이 勞動謠이며, 최초의 民謠였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러다가 先唱者와 後唱者가 나누어졌다. 先唱者가 노래하는 의미를 가진 변화 있는 말이 後斂 사이에 들어갔고, 後唱者는 일하지 않고 노래만 하는 경우도 생겼다. 先唱者의 노래는 풍부한 내용을 지니게 되었고, 後斂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先後唱으로 부르는 儀式謠(◎자신밟기노래)나 遊戱謠(◎강강수월래)에도 後斂이 있다. 民謠의 分化와 변모로, 先後唱으로 부르지 않을 수도 있는 民謠속에서도(◎아리랑), 궁중악곡으로 전환된 民謠에서도 (◎高麗俗謠의 일부), 民謠와 다소간 형식적 관련을 가진 記錄文學의

詩歌에서도(㉠翰林別曲이나 漁父歌) 後斂이 있다.<sup>32)</sup>

자장가에 나타나는 後斂들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

- [32] 자장자장 워리자장 우리애긴 잘도잔다 (「韓國民謠集 I」, 1468, 江陵)
- [33] 우리애긴 잘도잔다 워리자장 워리자장 ( " )
- [34] 자랑자랑 똥이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韓國民謠集 I」, 1573, 濟州)
- [35] 똥이자랑 똥이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 " )
- [36] 자장자장 우리아기 (「韓國民謠集 I」, 1580, 禮山)
- [37] 워리자라 워리자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韓國民謠集 III」, 1573, 奉化)
- [38]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韓國民謠集 III」, 1575, 扶安)
- [39] 자장자장 우리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韓國民謠集 III」, 1576, 安東)
- [40] 자장자장 우리자장 앞집개도 잘도잔다 ( " )
- [41]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韓國民謠集 III」, 1578, 安東)
- [42] 똥이자랑 똥이자랑 우리아기 재와도라 (「韓國民謠集 III」, 1580, 濟州)
- [43] 똥이자랑 똥이자랑 ( " )
- [44] 똥이자랑 똥이자랑 똥이자랑 똥이자랑 (「韓國民謠集 III」, 1581, 濟州)
- [45] 자장자장 자는구나 우리아기 잘도잔다 (「韓國民謠集 III」, 1586, 莞島)
- [46] 왕이자랑 왕이자랑 어서자라 어서자라 (「韓國民謠集 V」, 945 濟州)
- [47] 왕이자랑 왕이자랑 ( " )
- [48]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韓國民謠集 V」, 946, 濟州)
- [49] 자장자장 왕이자랑 (「韓國民謠集 V」, 959, 濟州)
- [50] 자랑자랑 자랑자랑 똥이자랑 똥이자랑 (「韓國民謠集 V」, 965, 濟州)
- [51]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韓國民謠集 V」, 977, 濟州)
- [52] 워리자랑 워리자랑 (「口碑文學大系 7-4」, p.266, 星州)
- [53] 자장자장 자장개야 (「口碑文學大系 6-1」, p.269, 珍島)
- [54] 자장자장 자장가야 (「口碑文學大系 5-2」, p.609, 莞州)
- [55] 자랑자랑 똥이자랑 자랑자랑 똥이자랑 (「口碑文學大系 9-3」, p.877, 濟州)

자장가의 後斂은 [32]에서 [55]까지 나타나는 것처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위 [32]에서 [55]까지 중 순수한 後斂句만을 다시 고르면 다음의 몇 가지 類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32) 黃希榮 ; “韓國詩歌餘音攷”, 「국어국문학」 18호, 1957. pp.189-201.

- [56] 자장자장 워리자장
- [57] 워리자장 워리자장
- [58] 자랑자랑 왕이자랑
- [59] 왕이자랑 왕이자랑
- [60] 자장자장 우리자장
- [61] 자장자장 자장자장
- [62] 자장자장 우리아기
- [63] 자장자장 자는구나
- [64] 왕이자랑 왕이자랑
- [65] 자장자장 왕이자장
- [66] 자랑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 [67]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 [68] 자장자장 자장개야
- [69] 자장자장 자장가야
- [70] 자랑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그런데 [56]에서 [70]까지 자장가의 後斂 들을 變異形態를 고려하여 비슷한 類型끼리 모이면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 [71] 자장자장 워리자장 (자랑자랑 왕이자랑, 자장자장 왕이자장)
- [72] 워리자장 워리자장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 [73] 자장자장 우리아기 (자장자장 우리자장)
- [74] 자장자장 자장자장
- [75] 자장자장 자는구나
- [76] 자랑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 [77] 자장자장 자장개야 (자장자장 자장가야)

따라서 자장가의 後斂은 위 일곱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진다. [71]과 [72]의 경우 괄호 속에 나타나는 後斂들은 제주지방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적 차이에서 變異된 形態들로 볼 수 있다. 그 變異된 형태는 “자장자장”이 “자랑자랑”으로 “워리자장”이 “왕이자랑” 또는 “왕이자랑”으로 변화되었다. [73], [76], [77]은 각각 變異된 모습들이다. 특히 [76]은 2音步 2行으로 볼

수도 있고 4音步 1行으로 볼 수도 있으나 나머지 類型들에 비추어 볼 때 2音步 2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71], [72], [73], [74], [75], [77] 이 모두 2音步 1行으로 되어 있어 자장가의 주된 音步는 2音步 1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순수한 後斂句가 2音步 2行으로 된 것은 唱者의 심리적 환경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그것은 辭說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시간적으로 필요해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자장가의 後斂句는 2音步 1行으로 되어 있으며 唱者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2音步 2行이 나타나는 수도 있다. 자장가의 後斂句가 2音步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머지 辭說도 2音步가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後斂段落은 後斂句와는 달리 “우리아기 잘도잔다”, “앞집개도 잘도잔다”, “우리아기 재와도라”, “어서자라 어서자라” 등의 辭說까지 모두 포함한다.

[78] (㉠) 자랑자랑 똥이자랑

우리아기 잘도잔다

(㉡) 우리애기 자는소리

놈의애기 우는소리

저래가는 금동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금동개야 말건말라

니에미영 니에비영

질긴질긴 총베로걸려다가

깃끈깃끈 천지소에

드리며령 내리며령

앞발에레 흥팡내껴

뒷발에레 흥팡내껴

앞집할망 불다므레

오란보난 앞집고냉이

박박툰어 먹엄시난

꼬부랑 막대기로

탁매난 (딱매리니)

꼬부랑강갱 꼬부랑강갱  
 (ㄷ) 똥이자랑 똥이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韓國民謠集 I』, 1573, 濟州)

[78] 를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을 때 (ㄱ)단락과 (ㄷ)단락은 동일한 辭說이 반복되고 있다. 즉 이것은 순수한 後斂句 “똥이자랑 똥이자랑”에 “우리애기 잘도잔다”는 사실이 연결되어 後斂段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32], [34], [37], [39], [40], [41], [45], [46] 등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자장가의 後斂은 各聯이 시작될 때는 물론 끝날 때도 불려지며 노래의 중간이나 各行이 끝날 때도 불려진다.

[79] (ㄱ)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두잔다  
 (ㄴ) 꿈나라에 들어가서  
 무슨꿈을 꾸고있나  
 (ㄷ) 자장자장 자장자장  
 (ㄹ) 꿈나라에 들어왔네  
 꿈나라에 들어가서  
 (ㄴ)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두잔다  
 (ㄷ) 업등애기 잘두잔다  
 꿈나라에 들어가서  
 고만안고 일어나라  
 (ㄴ) 자장자장 자장자장  
 (『韓國民謠集 V』, 954, 華城)

[79]에서 後斂에 해당하는 後斂句나 後斂段落은 (ㄱ), (ㄷ), (ㄹ), (ㄴ)이다. 이 가운데 (ㄱ)은 各聯이 시작될 때의 後斂이고, (ㄴ)은 各聯이 끝날 때의 後斂이다. (ㄱ)과 (ㄴ)의 後斂은 흥을 돋고 음악적 선율을 일으키는 구실 즉 음악의 생명인 喚起性和 暗示性的의 역할을 하는 調律的 性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반해 (ㄷ), (ㄹ)은 唱者에게

다음 辭說을 생각해내는 휴식의 시간이 되며, 辭說의 이해를 돕고 그 내용을 음미하는 시간의 休息的(轉換的) 性能을 띠고 있다.

- [80] (ㄱ) 자장자장 워리자장  
(ㄴ) 간솔밭에 범내린다  
(ㄷ) 자장자장 워리자장  
(ㄹ) 우리아기 잠디린다  
(ㅁ) 자장자장 워리자장  
(ㅂ) 멍멍개도 짓지말고  
    꼬꼬닭도 울지마라  
(ㅇ) 자장자장 워리자장

(「韓國民謠集V」, 958, 安東)

[80]에서 (ㄷ)과 (ㅁ)은 各行이 끝날 때마다 불리지는 것으로 調律的 性能이 강한 後敎들이다.

### 3. 文 體

文體는 概念的과 感覺的, 간결과 산만, 혹은 축소적과 과장적, 명확과 모호, 평정과 흥분, 低와 高, 단순과 장식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 말의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긴장과 이완, 彫塑的과 音樂的, 平滑과 粗雜, 無色과 有色으로, 또는 語源의 전체계에 대한 말의 관계에 따라 회화체와 필기체와 常套句(eliehé)와 개성적 문구로, 또는 말의 作家에 대한 관계에 따라 客觀的, 主觀的으로 나눌 수가 있다.<sup>33)</sup> 그런데, 文體論的 분석의 제일보는 音의 反復, 語順序의 眞倒, 文節 속에 포함되어 있는 體系(hierachy)의 구조를 관찰하는 것이 될 것이다.<sup>34)</sup>

民謠의 文體는 慣用語句, 問答形式, 反復, 修辭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자장가의 경우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부르는 獨唱이기 때문에 慣用語句, 反復,

33) R. Wellec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8. p.179.

34) 上揭書, p.180.

修辭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핀다.

### 3.1. 慣用語句

慣用的 表現은 民謠를 비롯한 口碑文學 文體의 한 특징으로서, 한 類型의 여러 各篇이나 여러 類型의 여러 各篇에 두루 存在하는 個別的 表現으로서 傳承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慣用的 表現은 한 유형에 속하는 여러 各篇에서만 두루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公式的 表現과 다르며, 公式的 表現과는 달리 둘 이상의 짝을 이루지 않고 對立과 反復 같은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하나 그것대로의 필요성을 지니고 傳承的으로 고정되어 있는 표현들이다.<sup>35)</sup> 이는 原初的으로 어느 한 唱者의 표현형식을 傳承·고정화한 借用的 表現으로 韻律적이고 音樂的 효과를 내어 예술적 가치를 높이며, 唱者에게는 기억을 도와 가사를 잊었을 때 이것으로 대치하게 하고, 聽者에게는 이해를 돕는데 기여한다.<sup>36)</sup> 조용히 생각하고 고치고 다듬으면서 唱者가 民謠의 類型을 기억해내고 各篇의 창작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기억을 되살리고, 새롭게 고치고 지어낸다. 그러기에 이미 있어온 慣用的 表現들에 의거해 기억하고 창작하는 편이 크게 유리하다.

韓國民謠의 慣用的 表現은 대체로 後斂, 地名, 修飾語, 事物의 描寫, 數字, 人物 描寫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도 자장가의 주된 慣用的 表現은 後斂과 人物 描寫다.

#### 3.1.1 後 斂

[81] 자장자장 워리자장

[82] 워리자장 워리자장

#### 3.1.2. 人物描寫

[83] 은똥금똥            도실금똥  
         고치생강            양념똥

35) 趙東一; 「紋事民謠研究」, 啓明大出版部, 1970. p.111.

36) 鄭東華; 前掲書, p.62.

멧지석자            ㅎ상똥  
 까마귀 날개 마똥   똥아  
 물아래 옥 마똥    똥아  
 제비생이            알라구리  
 꼭 마똥             똥아

(「濟州島民謠研究上」, 1395, 濟州)

[84] 자장자장   우리아기  
       눈이 커서   잃어버린것   잘찾고  
       코가 커서   냄새를        잘맞고  
       귀가 커서   도둑을        잘지키고  
       입이 커서   상치쌈을    잘먹고  
 자장자장   우리아기  
 은자동아   금자동아  
 은을사서   너를사랑  
 금을사서   너를사랑

(「韓國民謠集 I」, 1580, 禮山)

[83]은 직유법에 의해 딸의 人物描寫를 하고 있다. 까마귀 날개같이 날렵하고, 물아래 옥 같이 얼굴이 예쁘고, 제비의 부리같이 예쁜 입을 가진 어린 딸이다. [84]은 눈·코·귀·입이 크다는 것을 표현하여 비범한 아이임을 묘사하고 있다.

### 3.2. 反 復

反復이란 客觀的 指示內容을 갖지 않는 대신 의식에 투영되는 情感 또는 태도의 반영으로서 自己表出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렇다면 음성의 반복이거나 어휘 또는 구문의 반복이거나를 막론하고, 反復의 의미는 詩行에 情的 효과를 갖게 하는 하나의 장치라 할 수 있다.<sup>37)</sup> 反復의 기능에 대하여 M. Boulton은 “우리가 화냈을 때나 실망했을 때 같은 경우 곧잘 반복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우 반복의 효과는 강조에 있다”고 말하고 心理的 效果(mental effect)를 위한 반복과 呪術的 效果(magical effect)를 위한 반복으로 구분하고 있다. 呪術的 效果란 좀더 文

37) 金大幸; 「韓國詩歌構造研究」, 三英社, 1976. p.190.

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詩와 音樂이 함께 이야기 될 때에 지녔던 儀式的 효과를 가리키는 것이다.<sup>38)</sup> 이 예로 그는 古代詩의 後斂을 들고 있는데, 특히 무의미한 後斂의 反復은 개개의 독자가 아닌 집단적 독자를 의식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취할 反復이란 心理的 效果를 위한 反復이라는 일면에 歸着된다. 따라서 Boulton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反復에서 얻는 효과를 다섯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첫째, 反復된 단어를 강조해 준다. 둘째, 정서의 高潮化를 이루어 그 절정으로 이끌어 간다. 셋째, 새로운 경이감을 불러 일으킨다. 넷째, 單調性을 탈피함으로써 내용의 수식도를 높인다. 다섯째, 民謠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反復은 民謠에서 構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뿐 아니라<sup>39)</sup> 내용적으로는 정서 및 施律的 效果를 위해서 구사되는 것이 주이나 가끔 의미의 강조를 위해서도 사용된다.<sup>40)</sup>

그런데, 자장가에서는 音節反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語彙反復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統辭反復도 가끔씩 보인다.

### 3.2.1. AA×A型



#### 3.2.1.1 語彙反復

- [85] 차랑차랑 워리차창
- [86] 애기애기 후리애기
- [87] 동아동아 큼차동아
- [88] 닭아닭아 꼬꼬닭아
- [89] 개야개야 멍멍개야

### 3.2.2. ×A×B型

38) M. Boulton ; The Anatomy of Poetry, Loutledge & Kegan Paul Ltd., 1962. The Use of Repetition 참조.

39) Ruth Finnegan ;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103.

40) 鄭東華 ; 前掲書, p.68.

3.2.2.1. 語彙反復

- [90] 나라에는 총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91] 후리아기 차는소리  
놈의애기 후는소리  
[92] 하늘같이 높은사랑  
하해같이 깊은사랑  
[93] 차는것은 춤소리여  
노는것은 놈소리여

3.2.3. ×××A型

3.2.3.1. 語彙反復

- [94] 은차통아 음차통아  
추명창주 부귀통아  
칠기천침 보배통아  
채색비단 호색통아  
천치건곤 일월통아  
[95] 형제간에 후애동이  
일가친척 화복동이  
동내방내 휴신동이

3.2.4. ×A×A型

3.2.4.1. 語彙反復

- [96] 앞집애기 훗난애기  
후리아기 찰난애기  
[97] 음차통아 옥차통아

3.2.4.2 統辭反復

[98] 후리아기 찰도찬다 후리흥실 찰도찬다  
 후리임도 찰도찬다 짐흥이도 찰도찬다

### 3.3. 修辭

民謠의 辭說 자체가 다른 기록문학 작품에 비하여 대체로 修辭技巧가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民謠가 慣用的 表現, 問答形式, 反復 등의 文體的 특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修辭技巧가 없을 수 없다. 왜냐하면 修辭가 문장을 美的, 效果的으로 전달하기 위한 比喻, 修辭 등의 모든 방법적 노력의 의미할진대, 美的 修飾의 근원은 자연에 있고, 자연의 통찰과 탐구, 그리고 깊은 인식에서 美的 수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up>41)</sup> 이런 修辭的 특징은 民謠의 다른 文體的 특징과 함께 기억과 이해를 돕고 정서적 효과를 내는 구실을 하고 있다. 자장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修辭技巧는 直喩法, 羅列法, 對句法, 反復法 등인데 反復法은 前項에서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나머지 세 가지만을 다룬다.

#### 3.3.1. 直喩法



이는 民謠의 기본기교의 하나로, 民謠의 素朴美를 이룬다.<sup>42)</sup>

[99] 앞임땡이 헤그린듯  
 뒷임땡이 돌그린듯  
 물아래에 옥돌담고  
 가마귀에 존날개여  
 제비생이 알라구리  
 넓은전담 물려주마

(「濟州島民謠研究上」, 1391, 濟州)

[100] 자랑자랑 우리애기  
 선녀같이 이쁜애기  
 곱게 곱게 자는방에  
 괴도개도 아니온다

41) 文德守; 「新文章講話」, 成文閣, 1978. pp.292-293.

42) 鄭東華; 前掲書, p.87.

자장자장 우리아기  
 셋별같이 맑은눈에  
 조랑조랑 맏히여라

(「韓國民謠集 I」, p.380. 固城)

[99]는 직유를 통한 어린 아이의 人物描寫다. 앞이마는 해를 그린듯 하며, 물 아래 있는 옥돌같이 살결은 희고 얼굴이 예쁘다는 것이다. [100]은 “선녀같이 이쁜아기”와 “셋별같이 맑은눈”으로 표현되어 있다. 補助觀念 선녀와 셋별은 元觀念 이쁜 아기와 맑은눈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들이다.

### 3.3.2 羅列法

이 羅列法도 민요 문체의 특징으로, 민요의 素朴美와 自然美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교의 하나다. 이 기교도 민요 생성과정과 그 역사를 같이하는 것으로, 흔히 쓰이는 민요의 기본기교이다.<sup>43)</sup>

[101] 벨진밧도 너물리마  
 유기체물 너물리마  
 방앗귀도 너물리마  
 앳진쫓도 너물리마  
 싱근살래 너물리마  
 싱근물황 너물리마  
 (「濟州島民謠研究上」, 1391, 濟州)

[102] 옥차동아 줌차동아  
 칠기천금 보배동아  
 만첩산중 옥포동아  
 오색비단 채색동아  
 팔만장안 이탄동아  
 무하자의 백옥동아  
 하늘같이 높으거라

43) 鄭東華; 前掲書, p.92.

천사같이 높으거라  
 우물안의 옥녀신가  
 우물밖에 서기신가  
 약대같이 굳세거라  
 명잠자고 북잠자고  
 영화부귀 잠을잔다

(「韓國民謠集 I」, 1577, 醴泉)

[101]에서 어린 아이에게 물려줄 것은 여섯 가지가 된다. 넓고 좋은 밭·유기  
 제불·절굿공이·솔·찬장·물독들이 그것이다.

[102]는 보배동이·옥포동이·채색동이·이탄동이·백옥동이의 다섯 가지로 어  
 린 아이에 대한 希望을 나타내고 있다.

### 3.3.3. 對句法

Gorden H. Gerould는 民謠의 형식적 특색을 말함에 있어 對句는 후렴과 함께 필  
 수적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형식이라고 하였다. 앞위로 대립되는 句나 行으  
 로 짝을 맞추어 내용은 물론 韻律性을 강조하는 기교다.<sup>44)</sup>

[103] 자장자장 잘두잔다  
 놈의애긴 못두자고  
 우리애긴 잘두잔다  
 놈의애긴 조차떡에 코발라주고  
 우리애긴 이차떡에 꿀발라주지

(「韓國民謠集 I」, 1572, 龍岡)

[104] 자랑자랑 자랑자랑  
 똥이자랑 똥이자랑  
 어진동아 줌을자라  
 어질구나 착하구나  
 우리아긴 줌을잔다  
 놈의아긴 우는소리

44) Gorden Hall Gerould, The Ballad of Tradition, Gordian Press, Inc., 1974, p.4.

우리아기 자는소리  
어서 자라 어서 자라<sup>45)</sup>

[103], [104]는 모두 우리아기와 늑의아기의 對句이다. 늑의아기는 잠을 잘 못 자서 울지만 우리아기는 잠을 잘 자서 자는 소리가 좋다는 얘기다. 그러기에 늑의아기는 떡에 코를 발라 주지만 우리아기는 떡에 꿀을 발라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對句는 대부분의 자장가에 나타나고 있으며, 唱者의 노래하는 상황을 쉽게 이끌어 나가는 요소가 된다.

## Ⅶ. 結 語

이상에서 韓國 자장가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결론 삼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장가의 機能은 어린 아이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며, 어린 아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搖籃에서, 그네에서, 또는 안거나 업거나 눕히고서 잠재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2. 자장가는 老少共有의 노래이면서도 주된 唱者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부르는 다른 傳承童謠와는 類別되지만, 그 내용이 어린 아이들의 세계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民謠가 아니라 傳承童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자장가의 類型은 全國적으로 傳承되는 全國分布의 자장가와 그 地域의 특색을 반영한 地域的 자장가로 나눌 수 있다.

4. 全國分布의 자장가는 五倫, 富貴, 長壽의 내용이 잘 나타난 반면 地域的 자장가는 庶民性, 生活相, 諧謔性이 두드러지게 表現되어 있다.

5. 韓國 자장가의 修辭는 표면적으로 어린 아이를 美化시키기 위해 학, 낙타, 제비, 까마귀 같은 動物이, 그리고 成長을 기원하는 뜻에서 모과, 오이, 참외, 배추 같은 日常的, 可視的, 具象的인 것을 借재로 해서 비유의 대상을 삼고 있다.

6. 韓國 자장가의 內面的인 修辭는 자장가에 나타나는 네 가지 기본 요소인 우

45) 필자채록. 성산면 동남리, 1985.2.24. 박순이, 여·64.

리아기(A), 남의아기(A'), 개(B), 기타동물(B')의 對比關係에 따라 일곱 가지 對比되는 型과 두 가지 對比되지 않는 型으로 나눌 수 있다. 일곱 가지 對比型은 A:A'型, A:B型, A:B'型, A:A':B型, A:B(B')型, A:A':B'型, 그리고 A:A':B(B')型이 있다. 그리고, 두 가지 對比되지 않는 型은 우리아기만을 노래한 A型과 語戲的 요소가 강한 變型이 있다.

7. 律格構造는 4音節 2音步가 주된 音步格이었으며 가끔 노래의 중간중간에 3音步의 變格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音步가 주된 이유는 아기를 요람에 눕히고 좌우로 흔들면서 재우는 동작, 아기를 안고 재우는 동작, 아기를 업고서 재우는 동작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8. 後斂은 2音步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2音步의 後斂은 자장가의 辭說 자체를 2音步로 제약시키는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後斂은 辭說의 처음과 같은 물론 중간중간에도 나타나는데 처음과 끝의 後斂이 調律的 性能이 강한 반면 중간중간 또는 行이 끝날 때마다 하는 後斂은 休息的 性能이 강하다.

9. 文體는 慣用語句, 反復, 修辭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慣用語句는 後斂과 人物描寫가 주된 표현이다. 反復은 語彙反復이 대부분이며 統辭反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반복의 형태는 AA×型, XA×B型, XXXA型, XAXA型 등 네 가지가 나타난다. 修辭는 直喩法, 羅列法, 對句法이 기본 기교이다.

그러나, 음악적인 점을 결들이지 못하고 辭說 분석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자장가 연구는 보다 충실한 現場에서의 採錄을 통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나라 자장가와와의 비교 연구도 자장가 연구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다.

## 參 考 文 獻

### ○ 자 료 집

1. 金素雲；「朝鮮童謠選」，岩波書店，1933.
2. \_\_\_\_\_；「口傳童謠選」，博文書館，1940.
3. \_\_\_\_\_；「朝鮮口傳民謠集」，東京：第一書房，1933.
4. 金永敦；「濟州島民謠研究上」，一潮閣，1984.
5. 박두진；「한국전래동요독본」，을유문화사，1962.
6. 신경림；「한국전래동요집 1,2」，창작과 비평사，1981.
7. 任東權；「韓國民謠集 I,Ⅲ,Ⅴ」，集文堂，1976-1980.
8. 秦聖麒；「南國의 民謠」，濟州民俗文化研究所，1968.
9. 洪貞杓；「濟州島民謠解說」，省文社，1963.
10. 「口碑文學大系」，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0-1983.
11. 「韓國의 民俗音樂：濟州道民謠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4.

### ○ 論 文

1. 姜景禧；“濟州道の 農耕方式(農法)에 대한 比較研究(上)”，「耽羅文化」創刊號，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1982.
2. 具然軾；“우리民謠에 나타난 母性愛”，「民俗文化」，第二輯，東亞大學校 民俗文化研究所，1980.
3. 金大幸；“韓國詩歌律格論序說”，「韓國詩歌構造研究」，三英社，1976.
4. 金永敦；“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제주대학 논문집」제 10 집，1978.
5. \_\_\_\_\_；“韓國傳承童謠蒐集研究經緯”，「延岩玄平孝博士回甲記念論叢」，螢雪出版社，1980.
6. \_\_\_\_\_；“韓國傳承童謠에 드러난 靑少年의 意識”，「제주대학 논문집」，제 12 집，인문과학편，1980.

7. \_\_\_\_\_ ; “韓國傳承童謠의 傳承變異”, 「石田李丙疇先生回甲紀念論文集」, 二友出版社, 1981.
8. \_\_\_\_\_ ; “童謠”, 「韓國民俗大觀」第6卷 口碑文學篇,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1.
9. \_\_\_\_\_ ; “韓國傳承童謠와 動植物”, 「口碑文學」6, 韓國精神文化研究, 1981.
10. \_\_\_\_\_ ; “韓國傳承童謠의 主題”, 「韓國民俗學」17號, 民俗學會, 1984.
11. \_\_\_\_\_ ; “濟州島民謠研究”, 東國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3.
12. 서영숙 ; “시집살이 노래의 작품세계”, 韓國大學院 碩士論文, 1983.
13. 成基玉 ; “韓國詩歌의 律格體系研究”, 서울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0.
14. 梁淳秘 ; “朝鮮朝流配文學研究”, 建國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2.
15. 丙昌海 ; “韓國詩歌韻律의 構造研究”, 「成大文學」, 成大國語文學, 1976.
16. 鄭東華 ; “抱川地方의 民謠攷”, 「畿田文化研究」제5집, 인천교육대학 畿田文化研究所, 1974.
17. 鄭炳昱 ; “古詩歌韻律論序說”, 「國文學散藁」, 新丘文化社, 1959.
18. 趙東一 ; “現代時에 나타난 전통적 율격의 계승”, 「우리문학과와의 만남」, 弘盛社, 1978.
19. \_\_\_\_\_ ; “民謠에 나타난 諧謔”, 「韓國文學의 諧謔」, 時事英語社, 1982.
20. 黃希榮 ; “韓國詩歌餘音攷”, 「국어국문학」18호, 1957.

○ 著 書

1. 高晶玉 ;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2. 金大幸 ; 「韓國詩歌構造研究」, 三英社, 1976.
3. \_\_\_\_\_ ; 「韓國詩의 傳統研究」, 開文社, 1980.
4. 金東旭 ;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5. 文德守 ; 「世界文藝大辭典」, 成文閣, 1975.
6. \_\_\_\_\_ ; 「新文章講話」, 成文閣, 1978.

7. 朴相圭；「蒙古民謠研究」，開文社，1983.
8. 손동인；「한국전래동화연구」，정음문화사，1984.
9. 李在徹；「兒童文學의 理論」，螢雪出版社，1983.
10. 任東權；「韓國民謠研究」，二友出版社，1980.
11. \_\_\_\_\_；「韓國婦謠研究」，集文堂，1982.
12. 張德順外 3 人；「口碑文學概說」，一潮閣，1980.
13. 鄭東華；「韓國民謠의 史的研究」，一潮閣，1981.
14. 鄭炳昱；「國文學散藁」，新丘文化社，1959.
15. 趙東一；「敘事民謠研究」，啓明大出版部，1970.
16. \_\_\_\_\_；「우리문학과와의 만남」，弘盛社，1978.
17. \_\_\_\_\_；「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한길사，1984.
18. 최철·설성경；「민요의 연구」，정음사，1984.
19. 黃淇江外 3 人；「韓國文學研究入門」，知識產業社，1982.
20. 玄容駿；「濟州島神話」，瑞文文庫，1978.
21. 許米子；「韓國詩歌文學研究」，誠信女子大學校出版部，1982.
22. 「韓國文學의 諧謔」，國際文化財團，時事英語社，1982.
23. 「韓國文化史大系 V」，言語·文學史(下)，高大民族文化研究所，1967.
24. 「韓國民俗大觀」第 6 卷，高大民族文化研究所，1981.
25. 柳田國男；「民謠覺書」，東京：創元社，1940.
26. Alan Dundes, The Study of Folklore, Prentice-Hall, Inc., 1965.
27. C.Brooks & R.P. Warren, Understanding Poetr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60.
28. Gorden Hall Gerould ; The Ballad of Tradition, Gordian Press, Inc.,  
1974.
29. I.A.Richards,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Loutledge & Kegan  
Paul Ltd., 1967.
30. M.Boulton ; The Anatomy of Poetry, Loutledge & Kegan Paul Ltd., 1962.

31. R. Wellec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8.
32.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Abstract

# A Study of Korean Lullabies

Youn Chi-boo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don*

The lullabies are a sort of children songs by which we lull babies to sleep with such actions as cradling, or swinging, or embracing inside arms, or backing, in which actions we move right and left, or to and fro. Sometimes we tap babies' hip very lightly. The followings are summaries of this paper.

1. One of the major roles of the lullabies would be to babies asleep. There can be, at least, three ways of making them asleep. We can use a cradle or a swing those of which are with any instrument for this goal. The other way is rather manual. They are embracing in arms, backing, laying them down in bed, and so forth.

2. Lullabies, although they are entertained by young and old people as well, show the difference from common children songs in the sense that most of the singers are adults. It is assumed, nevertheless, that they can be treated as children songs because they contain the world of children.

3. There can be observed two kinds of lullabies when we pay our attention to their contributions; prevailed ones over the Korean penninsular and local ones over a particular locality. The latter, needless to say, reflects a unique local features.

4. The former types keep those themes such as the Five-Principal-Moralities, wealth and high elevatin in rank, longevity, and so forth, while the latter represent commonership, daily lives, satireship, and so forth.

5. The treat animals to highen the beauty of babies. A crane, a cammal, a swallow, a crow, and anther animals are just good examples. Plants are adopted for the wish of growing-up without any bad luck. A papaya, a cucumber, a melon, and a vegitableare such examples All of these figurative mediums are the very daily, visible, and concrete objects in commo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ne, 1985.

6. The essential tention initiators in the Korean Lullabies are surmised as four candidates. They are my baby (let's call it just A for short), others baby(A'), a dog (B), and another animals (B'). By combining those candidates, we can figure out seven matchable forms, by which term the writer means that all four factors match together in quite harmonic fashion so as to make the songs precede well enough, and two unmatchable forms. The former include type A:A', type A:B, type A:B', type A:A':B, type A:B(B'), type A:A':B', and A:A':B(B'). The latter are such type as A which content is about my baby exclusively, and a variant type in which a sort of language game elements (just word for word, not for object) are appeared.

7. The common syllabic forms are two-feet ones. Sometimes, however, three-feet can be inserted into even-feet. The reason, it is assumed, why even-feet are adopted in most songs are closely related to the activity of lulling babies in any motion such as cradles, swings, manual soothings, and so forth all of which are performed by two-steps in regular modes.

8. The even-feet constraint is preserved quite strongly in the final stanza. This fact seems to restrict the preceding stanzas adhere the followed stanza fashion. This final stanza, in addition, which character deserves repetition of words can appear in the beginning or middle part freely. The more the repetition stanza comes in the beginning or concluding part of the songs, the more strong rhythmic function is retained. However it keeps rather resting function in the middle part of the songs.

